

1.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시장·군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6.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7.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8.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건축허가권한이 있다. ()
9. 기숙사는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10. 주택법령상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에 포함되지만 연립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

매일정리노트(O, X) 정답

1. (O)
2. (O)
3. (X) 2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4. (O)
5. (O)
6. (X)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다.
7. (O)
8. (X)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라 사전승인권자에만 해당한다.
9. (O)
10. (X) 연립주택도 주택법령상의 주택에는 포함이 된다.